

# 陸史詩의 世界와 精神

李 庸 勳

The poems and their spirits of Ryuk-Sa

Lee, Yong-Hoon

〈 차 례 〉

- |                  |                     |
|------------------|---------------------|
| I. 序 言           | III. 超克意志와 狀況克服의 世界 |
| II. 어둠의 世界와 狀況認識 | IV. 結 語             |

##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ems and their spirits of Lee, Ryuk-sa. The author adopts the method to analyze the contexts of the poems.

After examining his poems, the author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essence of his poems exists in recognizing and overcoming the situations.

## I. 序 言

陸史 李源祿은 <불굴의 關魂으로 日帝에 저항한 志節詩人>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陸史에 대한 평가와 이해의 대부분도 固定觀念화된 이같은 通念과 그리 멀지 않는 데서 이루어져 왔다.

사실 陸史는 日帝의 폭압과 맞서 40평생이라는 짧은 생애의 대부분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친다. 여러 차례의 獄苦, 地下抗日運動團體인 義烈團加入, 北京감옥에서의 殉義 등은 日帝와의 피나는 항쟁의 기록이며, 그가 조국 독립 운동에 신명을 바친 혁명가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된다. 그만큼 陸史는 혁명가로서의 행적이 뚜렷한 시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陸史詩의 연구 작업은 이와 같은 그의 행적 및 생애와의 밀접한 함수관계 밑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陸史는 讚辭와 稱譽의 차원에서 <투철한 民族的 抵抗詩人>으로 평가·해석되었던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해석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陸史는 이 時期, 즉 일제의 침략에 따르는 虐政이 가혹해진 時代的 狀況과 民族的 現實을 詩로서 徹頭 徹尾 告發한 詩人이다.<sup>1)</sup> 한마디로 해서 陸史의 詩作全般은 그 생애나 行程이 말하여 주듯이, 투철한 민족정신을 象徵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sup>

1) 金學東, 韓國現代詩人研究, 서울, 민음사, 1977, p.234.

2) 위의 책, p.187.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이 결코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抵抗詩人·志節詩人>이라는 보편적인 진술이 전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陸史詩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陸史詩=抵抗의 意味>라는 圖式이다. 이러한 도식은 金興圭 교수의 적절한 지적처럼 <정치적 차원에 국한된 저항의 의미><sup>3)</sup>로만 그의 詩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도식적인 思考를 깨고 陸史詩의 실체를 추구한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으로 金興圭 교수의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이라는 논문이 있다. 이 연구 업적은 陸史詩를 抵抗의 논리로만 도식화하는 硬直性으로부터 그의 詩를 해방시키고, 아울러 그의 작품에 정당한 詩的 定位를 부여하는 진지한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既存研究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 업적은 필자에게 많은 示唆을 던져주었음을 밝힌다.

필자는 陸史詩世界의 의미구조와 그 정신을 밝히기 위해, 前揭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작품 자체의 문맥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실이 전제된다.

陸史를 가리켜 <抵抗詩人·志節詩人>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술을 收斂하면서, 한편 이러한 보편적인 진술 속에 흔히 드러나는 바 <저항의 의미>라는 圖式的인 논리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陸史의 시를 그의 생애 및 행적과의 함수관계 밑에서 보려고 하는 태도에서 前揭한 바와 같은 도식화는 쉽사리 이루어지는 까닭에, 필자는 가능한 한 작품 자체의 문맥을 증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陸史詩의 세계는 보다 참담하게 밝혀지리라 본다.

陸史의 詩作活動 기간은 그가 1944년 北京 獄舍에서 永眠하기까지 불과 10년 내외였으며, 그 10년 동안 창작된 詩作品도 漢詩 3편<sup>4)</sup>을 포함하여 34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韓國現代詩史에서 陸史詩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작품적 가치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그의 시를 관찰하면, 우리는 그가 조국 광복을 위하여 투쟁한 혁명가로서의 생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는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一體化하고, 암흑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歷史의 내일을 믿고 自我를 지킨 시인>임을 알게 된다. 또한, 같은 암흑기를 살고 간 다른 어느 시인보다도 당대의 時代的·歷史的 상황에 대한 인식이 투철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는 現實狀況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초극하려는 강렬한 意志의 世界를 보여준다.

이제, 이같은 陸史詩의 世界와 精神을 다음 두 項을 통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Ⅱ. 어둠의 世界와 狀況認識

陸史의 詩가 투철한 狀況認識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失題」, 「蝙蝠」, 「路程記」, 「江 건너 간 노래」,

3)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創作과 批評 40호, 1976, 여름호, p. 260.

4) 「晚登東山」, 「酒暖興餘」, 「謹賀 石庭先生六旬」.

「子夜曲」 등과 같이, 당대의 현실을 직접적 主題로 한 작품들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품들은 強迫된 現實狀況 및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시인의 어둔 삶의 체험을 치열하게 나타낸다.

행랑 뒷골목 흐릿한 상술집엔  
 팔려온 冷害地處女를 둘러싸고  
 大學生들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思想善導의 염탐꾼 밑에 떨고 있다.

라디오의 修養講話가 끝이 났는지?  
 마-장 俱樂部 문간은 하품을 치고  
 빨당 돌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새끼만  
 이 都市의 良心을 지키나 보다.

〈「失題」 제2,3연〉

「思想善導의 염탐꾼 밑에 떨고 있는 大學生들의 눈초리」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陸史는 불안하고 強迫된 植民地的 現實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그런데, 당대의 현실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시인의 諷刺的인 語調를 담고 있다. 「冷害地處女를 둘러싼 지질숙한 눈초리」를 가진 대학생들, 당시 無氣力한 세태의 단면이 풍자적으로 罵倒되고 있는 것이다.

「하품을 하는 마-장 俱樂部 문간」, 「빨당 돌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새끼만 이 都市의 良心을 지키나 보다」와 같은 권태롭고 무기력한 현실상의 단적인 표현 역시 다분히 풍자적이다. 풍자는 冷笑的 心理에 의한 현실의 실제적 洞察 및 認識의 산물이다.

陸史의 現實認識(狀況認識)은 삶의 최종적 의미마저 상실된 現實狀況을 극명하게 표출한 다음 작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光明을 背反한 아득한 洞窟에서  
 다 썩은 들보가 문허진 城砦 위 너 홀로 도라단이는  
 가엽슨 빠쥐여! 어둠에 王者여!  
 쥐는 너를 버리고 부자집 庫간으로 도망했고  
 大鵬도 北海로 날려간 지 일이 오래거늘  
 검은 世紀의 喪裝이 갈갈이 찢어질 긴 동안  
 비둘기 같은 사랑을 한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한  
 가엽슨 빠쥐여! 孤獨한 幽靈이여!

제 情熱에 못익여 타서 죽는 不死鳥는 안일망정  
 空山 잠긴 달에 울어새는 杜鵑새 울니는 피는  
 그래도 사람의 心琴을 흔들어 눈물을 짜내지 안는가!  
 날카로운 발톱이 암사슴의 연한 肝을 노려도 봤을  
 너의 머-나 祖先의 榮華롭든 한 시절 歷史도  
 이제는 「아이누」의 家系와도 같이 서러워라  
 가엽슨 빠쥐여! 滅亡하는 거레여!

〈「蝙蝠」 제1,2연〉

이 시는 作品構成에 있어서 산만하고 압축성이 결여된 작품이지만, 陸史가 처했던 당대의 현실상황을 가장 극렬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申石岬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작품은 日帝의 檢閱에 깎인 작품이다.<sup>5)</sup>

「光明을 背反한 아득한 洞窟」, 「썩은 들보가 문허진 城砦」, 「검은 世紀의 喪裝」등, 이 시가 설정한 상황은 「種族」, 「겨레」, 「祖先」, 「歷史」 등의 낱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植民地의 民族現實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경우, 「박쥐」는 「비둘기 같은 사랑」도 「앵무새」 같은 威名도 가져보지 못하고, 역사의 어둠 속을 헤매는 民族이고, 또는 어둠에 쫓기면서 暗躍하는 詩人 자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시에 설정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陸史가 인식한 현실상황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번민과 어둠의 세계>이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의 樣相이 <박쥐>로 비유되고 있다. 「蝙蝠」은 자신의 삶의 양상이 <박쥐>로 비유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陸史의 언어는 현실상황의 극렬한 認識이며, 어둡고 고통스럽게 체험되는 삶의 표출이다. 이러한 점은 작품 「路程記」에서 더욱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차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주축한 漁村보담 어슬프고  
삶의 퇴굴만 오래묵은 布帆처럼 달아내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던단  
밤마다 내 꿈은 西海를 密航하는 「장크」와 같이  
소금에 절고 潮水에 부프러 울랐다.

항상 흐렸한 밤 暗礁를 벗어나면 颶風과 싸워가고  
傳說에 읽어본 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南十字星도 비쳐주지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공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빠진 소리 절질에 나는 붙어 왔다  
미-나 港口的 路程에 흘러간 生活을 드러다보며

<「路程記」 전문>

이 시는 陸史의 自傳的 作品으로서 지난날 그가 체험한 삶의 고뇌의 기록이다. 「西海를 密航하는 장크」와 같이 「소금에 절고」, 「颶風과 싸워가는」 시인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어둠의 세계>와 맞서는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했는가를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그가 義烈團

5) 申石岬, 「李陸史의 追憶」, 現代文學 96호, 1962, 12, p. 239.

「어느날 그는 나에게 <蝙蝠>이라는 自作詩稿를 가지고 와 읽어 주었다. ……그는 뒤에 이 作品의 完篇을 發表하려 했었는데 檢閱에 깎이고 말았다.」

단원으로서 항상 쫓기는 생활, 거듭되는 投獄生活에서 오는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強迫觀念 등이 여기에 포획될 것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우리는 陸史가 自己放棄的인 허탈과 허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이라는 표현에서 그러한 허탈과 허무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것은 <어두운 삶>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체험의 일부이리라.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관찰하면, 陸史는 스스로 역경과 고난의 자취를 더듬어봄으로써 삶의 고뇌와 허무를 극복하려는 결의를 숨기고 있음을 본다. 이 시의 表現時制가 過去回想的이라는 사실이 우선 주목된다. 과거회상적인 기록을 통해서 陸史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아울러 과거를 매듭지음으로써 나아갈 바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결의를 엿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徵候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썩아 빠진 소라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港口의 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의 마지막 연에 나타난다. 이 마지막 연은 「소라껍질」에 붙어온 자신의 行程이 일단 끝났음을 말해주며,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胚胎되고 있음을 示唆해 준다. 그러므로, 이 시의 過去回想的性은 단순한 과거회상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결의를 내포한 과거회상이라 할 수 있다.

金澤東 교수도 이에 대해 언급하여

陸史가 자신의 형적을 「路程記」나 「年譜」에다 스스로 작성케 한 動機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여러가 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회상과 고향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sup>6)</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狀況克服>의 章에서 논의될 意志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것이다.

陸史의 시에서 삶과 현실의 인식은 「路程記」에서 본 바와 같이, 虛無意識을 드러내면서 한편 자신의 삶의 근거에 대한 否定的 意識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意識傾向은 陸史詩에 있어서 주로 失郷意識으로 나타난다.

수만호 빛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술품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겁을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고르는 꽃볼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러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찌 강물이 흐르노노

6) 金澤東, 앞의 책, pp. 221~222.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드리노라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子夜曲」 전문〉

鄭漢模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의 모티프는 失郷意識과 鄉愁에 있다.<sup>7)</sup>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는 失郷意識의 단적인 표현이다.

고향은 인간의 삶의 근거이며, 生存意識의 바탕이다. 그러한 근거와 바탕을 잃어버린 현실상황에서 이름뿐인 고향은 허울만 남아 그 이상 고향일 수 없고, 미상불 이끼만 푸른 무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港口의 짜운 소금에 저리면서도 異域의 하늘가를 방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오히려 살 수 없으리라는 逆說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인의 意識狀況은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기에, 숨막힐 상황 속에서 陸史는 어차피 〈바람〉과 〈눈보라〉를 삶의 필연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리라.

「草家」, 「南漢山城」, 「강 건너간 노래」 등도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특히, 「江 건너간 노래」는 우수와 절망 그리고 삶의 고뇌와 함께 비극적인 현실상황 또는 소망스런 삶을 향한 언어의 상실을 노래한다.

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밤은 옛시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가락 여기두고 또 한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江 건너 갔소

〈「江 건너간 노래」 제4,5연〉

### Ⅲ. 超克意志의 世界와 狀況克服

지금까지 논의된 바, 陸史詩에 드러나는 어둠의 세계와 狀況認識은 절망적 탄식이나 고통스러운 삶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필경은 그것을 극복하고 초극하려는 강인한 意志의 세계로 나아간다. 여기에 陸史詩世界的 참다운 모습과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다.

陸史는 번민과 어둠의 세계를 통해 超克意志의 세계를 획득한다. 狀況認識에서 狀況克服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超克의 세계로 나아가는 징후는 앞에서 살핀 「路程記」 「子夜曲」 등의 작품은 물론, 「邂逅」 「海潮音」 등과 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의 고뇌를 표백한 작품에서도 엿보이고 있지만, 그와 같은 방향과 전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絶頂」을 꼽을 수 있다.

매운 季節의 채죽에 갈겨

7) 鄭漢模, 「육사시의 특징과 詩史的 的의」, 나라사랑 16집, 1974, p. 60.



마침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밭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달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갈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絶頂」 전문〉

이 작품의 詩語는 고도로 압축되고 절제되어 있으며, 詩의 精神에 있어서도 고도의 자기억제와 균형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작품 전체의 의미 구조는 狀況提示와 狀況認識 그리고 狀況克服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황제시(상황설정)는 1연과 2연, 상황인식과 상황극복은 각각 3연과 4연에 놓여져 있다.

「매운 季節」, 「채썩」, 「北方」, 「高原」, 「서리밭 칼날진」 등의 詩語에서 알 수 있듯이 1연과 2연은 極限的인 상황의 제시이다. 「매운 季節의 채썩」에 휩쓸려온 北方, 이 北方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이며, 그것은 칼날진 서릿밭과 같은 곳이다. 이것이 陸史가 처한 상황이다. 이 시의 제목 〈絶頂〉처럼, 陸史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苦痛과 忍苦의 극점이다.

이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 설정은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달 곳조차 없다」와 같은 제 3연의 상황인식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마지막 연의 상황극복의 의지로 나아간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는 절망적인 極限點을 초극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陸史는 극한상황(한계상황)에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맞설뿐 아니라, 〈무지개〉를想定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초극하려는 意志의 極點을 보여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에서 〈서릿밭〉(극한상황의 이미지)은 〈무지개〉(상황극복의 이미지)로 屈折되면서 一體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굴절과 일체화를 통해서, 陸史는 絶頂의 限界狀況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신의 경지를 획득한다.

이와 같이, 陸史는 〈絶頂〉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限界狀況을 극복하기 위해 〈무지개〉를想定하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의 毅然함을 보여준다. 超克意志의 極點에서 핀 〈무지개〉, 그것은 바로 陸史의 삶의 어둠과 고뇌를 해소시키는 自己救援의 빛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지개〉를 극한상황의 情緒的 解消라는 측면에서 본 朴斗鎭 교수의 다음 해석은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 陸史는……그 絶望의인 죽음의 極限境을 〈무지개〉로想定함으로써, 絶對的인 詩美의 世界, 겨울 자체와 강철로 된 絶望의 테두리를 美化시켜 음미하는 精神的인 餘裕, 情緒的인 餘地를 남김으로써 소극적인 현장 탈출, 幻想的이지만 情緒的 眞實을 통한 感情的 超克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었다.<sup>8)</sup>

8)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서울, 一潮閣, 1971, p.111.

다음 작품 역시 「絶頂」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다.

푸른 하늘에 닿은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湖水속 깊이 거꾸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喬木」 전문〉

「喬木」은 극한상황 속에서 비극적으로 인식되는 自己存在에 대한 省察을 보여준다. 앞의 첫 연이 그것이다.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있는 喬木」 그것은 擬人化된 표현으로, 바로 陸史 자신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40년 당시 더욱 加重되었던 日帝의 暴壓과 맞서 투쟁한 陸史의 모습이야말로 그러한 「喬木」에 비유될 수 있고, 또한 처참한 植民地狀況 속에서 확인되는 自己存在의 모습이 또한 〈세월에 불탄 喬木〉으로 표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연에서 보이는 시인의 自己省察은 어떤 매서운 決斷의 의지를 수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참아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와 같은 詩行에서, 또 특히 〈차라리〉, 〈아예〉, 〈마침내〉, 〈차마〉 등 단호한 決意의 의미를 나타내는 副詞에서 그러한 의지는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차라리 꽃피진 말아라」의 의미를 어느 研究者는 「喬木의 生長을 拒絶」<sup>9)</sup>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이 부분은 「生長의 拒絶」이 아니라, 오히려 生長을 역설적으로 다짐하는 決意의 表現이다. 이러한 결의의 표현은 제 2연의 끝 詩行 「아예 마음은 뉘우침 아니라」와 같은 강인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그 다음 연에서도 반복된다.

이와 같이, 「喬木」의 自己省察이 나타내는 단호한 결의는 마침내 역설적으로 〈湖水속 깊이 거꾸러지는 喬木〉을 성립시킨다. 湖水속에 깊이 투영됨으로써 바람도 흔들지 못하리라는 것은 하나의 逆說이다.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喬木〉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존재가 된다. 마찬가지로 陸史는 호수속에 깊이 거꾸러진다는 逆說의인 言語를 통해서 〈喬木〉처럼 自己存命의 근거를 획득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自己超克의 길을 마련한다. 湖水속에 깊이 거꾸러짐으로써, 自己存命의 근거를 획득한다는 역설은 自己超克을 지향하는 의지의 표출이다. 陸史는 「絶頂」에서 〈무지개〉의 상정을 통해서 狀況克服의 자리를 얻듯이, 「喬木」에서는 〈湖水〉에 거꾸러지는 역설을 통해서 그

9) 金允植, 近代韓國作家論攷, 서울, 一志社, p. 257. 또는 金興圭의 앞의 논문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創作과 批評 40호, p. 225.



것을 획득한다. 이 경우 <무지개>와 <湖水>는 超克 이미지란 점에서 同質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湖水속 깊이 거꾸러져……」)에 대해 「자신의 최후적 存命마저도 포기한 순간」<sup>10)</sup>이라고 한 金興圭 교수의 해석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자신의 최후적 存命마저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自己存命의 확인이며, 自己超克을 지향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陸史詩 精神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상황극복의 超克意志이다. 이러한 超克意志는 다음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볼 수 있듯, 강렬한 所望意識으로 노래되기도 한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十二星座 그 순한 별을 엮지나 노래하겠네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때 보고 저녁 들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親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未來를 꾸며볼 東方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地球를 갖는 것  
아름진 서름 밖에 읽을 것도 없는 남은 이다에서

〈중략〉

한 개의 별 한 개의 地球 단단히 다져진 그따 우에  
모든 生産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일부〉

陸史는 이 시에서 삶의 光榮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망의 자리를 念願한다. 「한 개의 별」이란 바로 그렇게 渴求되는 염원의 대상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東方의 큰 별」을 바라는 未來的 소망은 植民地 民族現實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費用化되어 있듯이 祖國光復에의 염원으로 볼 수 있다. 金澤東 교수의 다음 견해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한 개의 별」은 「한 개의 地球」로 換置되어 祖國을 포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한개의 별」을 「東方의 큰 별」이라 하여 조국 독립과 해방을 갈구하는 염원의 대상이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한 개의 별」이 포괄하는 상징의 일부이지 전체는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국 광복에의 염원이라기 보다 억압된 삶의 해방과 참된 생명의 가능성을 希求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念願의 精神은 陸史詩의 名篇으로 꼽히는 「曠野」에서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답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곳을 犯하던 못하였으리라

10) 金興圭, 앞의 논문, p. 255.

11) 金澤東, 앞의 책, p. 200.

끊임 없는 光陰을  
부즈런한 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江 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네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曠野」 전문〉

詩人의 우렁찬 목소리는 時間과 空間을 무한히 확대시키면서 <超人>을 기다리는 영원의 세계로 채 단는다.

까마득한 曠野라는 空間에 어울리게, 측량할 수 없는 時間으로서 千古의 歲月이 설정되고 있다. 즉, 曠野로 표현된 넓은 공간, 그리고 太初(까마득한 날)와 千古로 표현된 무량한 시간의 설정, 이것을 金澤東 교수는 陸史詩의 중요한 특질의 하나로 손꼽은 바 있지만,<sup>12)</sup> 어쨌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설정에서 우리는 陸史의 넓은 정신적 幅量을 본다. 시간 및 공간의 설정과 확대는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黃昏」, 또는 앞에서 살핀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와 같은 작품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陸史詩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擴大意識은 日帝의 暴壓, 또는 억압된 자기 삶의 고뇌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설정된 「曠野」라는 공간은 소망의 세계를 향하는 이 시인의 강렬한 意志(精神)의 산물임은 물론, 미래에 그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生命世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늘이 열리면서 닭이 울고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여는 曠野>는 곧 자연의 生命秩序가 이루어지는 곳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와 삶의 價値秩序가 이루어질 장소이다. 그래서, 陸史는 太初空間으로서의 曠野, 때묻지 않은 神聖한 曠野를 노래하는 것이다.

<曠野>의 의미가 이렇게 파악될 때, 이 시의 主題部인 4, 5연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해명된다.

이 부분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는 핵심이 되는 詩句이다. 그러면,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에게 부르게 하겠다는 「가난한 노래의 씨」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曠野에 뿌려져야 할 <새로운 삶과 역사 창조>의 씨앗이라고 본다. 이같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적어도 이 시인이 가진 절대적인 召命意識에 따른 행위라 할 수 있다. 「눈 내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한」 그 절대적인 孤絶 가운데서도 씨뿌리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행위의 의식 바탕을 이루는 핵심은 歷史의 내일을 믿는 確信이며 信念이다. <千古의 뒤에 올 超人>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확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삶의 질서와 歷史創造라는 그 미래적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언제인지 지금은 까마득하여 기약할 수 없지만, 역사의 내일과 미래를 믿는 절대적 信念 때문에 시인은 능히 <千古의 뒤에 올 超人>도 기다릴 수 있

12) 위의 책, p. 222.

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超人>은 누구이며, 시인은 하필 왜 超人을 기다리는가?

단적으로 <超人>은 광야에서 <노래의 씨>를 자라게 할 사람이고, 새로운 삶의 질서와 역사창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삶의 질서와 역사 창조는 凡人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威力을 가진 超人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陸史는 그의 <가난한 노래>를 千古의 뒤에 올 超人에게 부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작품 「曠野」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超人에의 기다림, 염원,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은 궁극적으로는 부정적 현실상황을 뛰어넘어 참삶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超克意志의 산물이다.

특히, 陸史詩에서 참삶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超克精神은 흔히 그것이 포화하는 自滅的 한계를 넘어서, 未來像의 現在的 顯現이라는 독특한 세계를 形象化한다. 다시 말해서, 陸史詩는 의식 속에서 소망의 세계를 미리 실현하고 획득한다.

이처럼, 의식세계 안에서 미래를 先取하는 정신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꽃」과 「靑葡萄」가 있다. 가령, 「꽃」의 마지막 연은 기다림의 세계, 의식 속에 先取된 미래적 生命世界를 황홀하게 보여준다.

한 바다북관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에는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꽃」 끝연>

「靑葡萄」는 시인의 의식속에 先取된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내 고향 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전이주전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얹은 몸으로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靑葡萄」 전문>

이 시는 陸史詩 가운데서 가장 보기 드물게 여성적인 이미지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만큼 맑고 섬세한 고운 詩想과 아름답고 정결한 抒情의 律調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陸史詩에 나타나는 강렬한 男性的인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 까닭은 이 작품의 〈내 고향〉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설명되어질 것이다.

「青葡萄」의 「내 고향」(고향)은 前掲한 「子夜曲」의 〈고향〉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사실이 우선 주목된다. 「子夜曲」의 〈고향〉은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무덤〉과 같이 幽廢된 地域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青葡萄」의 〈고향〉은 청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푸른 바다 위로 흰 돛 단 배가 오가는 아름다운 고향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자명하게 드러나듯이, 이 작품에 설정된 「내 고향」은 현실적인 고향이 아니라, 未來像의 現在的 顯現으로서 시인의 의식속에 想定된 고향이다. 즉, 陸史의 의식 속에 先取된 未來의 念願의 세계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이 확보되는 곳이다. 이 경우, 〈내 고향〉은 〈무지개〉, 〈광야〉, 〈한 개의 별〉, 〈꽃城〉 등이 갖는 의미와 同質的인 것은 물론이다.

다음 지적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작품이 설정하는 〈내 고향〉은 아마도 幼年의 陸史가 체험하였을, 그리고 어두운 시대의 억압을 벗어나 회복되어야 할 〈생명의 공간〉으로 생각된다.<sup>13)</sup>

〈내 고향〉, 즉 고국산하에 대한 무한한 향수와 〈이 마을 전설〉, 즉 민족 역사의 傳承으로 이어지는 이 詩는 어떤 현실적인 對象의 제시라기보다는 오히려 막연한 기다림, 내일에의 염원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sup>14)</sup>

이렇게 볼때, 대부분의 陸史詩에 나타나는 강렬한 투쟁적·남성적 이미지와는 달리, 섬세한 여성적 이미지와 아름다움이 이 시에 나타나는 까닭이 밝혀진다. 그것은 이 시가 의식 속에 想定된 念願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망스러운 세계에 대한 指向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詩的 描寫는 대개 여성적인 이미지와 아름다움, 맑고 청초한 감각, 정결한 抒情의 律調 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이 시인이 安住하고 싶은 삶의 터전, 즉 그의 의식 속에 先取된 소망의 세계가 바로 이 작품이 설정한 〈내 고향〉이라고 할 때, 이 시의 話者가 기다리는 〈손님〉은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가?

먼저, 명백히 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흔히 도식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처럼, 〈손님〉을 〈독립투사〉라는 의미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sup>15)</sup> 그것은 작품 자체의 意味構造를 떠난 비약적인 해석이다. 다만, 〈독립투사〉는 金興圭 교수의 적절한 지적처럼 「고달픈 〈손님〉이 포괄하는 의미의 〈일부〉일 수 있을」<sup>16)</sup> 따름이다.

그러므로, 〈손님〉은 〈투쟁하는 지사〉라기보다 陸史가 확보한 삶의 자리(소망의 세계)에 같이 참

13) 金興圭, 앞의 논문, p. 257.

14) 金澤東, 앞의 책, p. 210.

15) 陸史의 가까이 지냈던 시인 申石岬씨는 陸史를 회고하는 글에서 「'靑袍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이란 결국 잃어진 조국과 조국을 찾아 투쟁하는 지사들의 표징에 틀림없다」고 하였다(『이육사의 인물』, 나라사랑 16집, p. 102).

16) 金興圭, 앞의 논문, p. 257.

여해야 할 사람, 즉 陸史의 分身과도 같은 존재로서의 정신적 伴侶者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陸史의 참삶의 자리인 <고향의 세계>가 회복되었을 때, 같이 참여하리라고 확신하는 同伴者의 대상이 바로 <손님>의 의미이다. 그것은 또 陸史가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어떤 久遠의 대상일 수도 있으리라.

이제, <내 고장의 七月의 청포도>는 익어가니, [멀리 방랑했던 <고달픈 者>], 즉 陸史가 기다리는 <손님>은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마땅할 것이다.

陸史는 否定的 現實狀況을 뛰어 넘어, 풍요로운 삶의 자리를 획득하려는 超克意志로써, 「子夜曲」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幽廢된 지역으로서의 고향의 어둠을 해소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인 고향을 회복한다. 이처럼, 陸史는 「靑葡萄」에서 번민과 어둠의 세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先取하는 초극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渴求하는 소망의 세계를 抒情的으로 형상화해 놓았던 것이다.

#### Ⅳ. 結 語

이제까지 필자는 陸史의 생애와 행적보다는 주로 작품 자체의 문맥에 접근하면서 陸史의 시를 검토해 왔다.

이상의 검토에서 確言할 수 있는 것은, 陸史詩는 일률적으로 抵抗의 의미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陸史의 言語는 체험된 삶의 폭넓은 기록이며, 자신의 삶과 시대에 대한 투철한 認識을 통해서 超克의 세계를 지향하는 강렬한 意志의 표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陸史詩의 전체적인 의미구조와 그 내적 논리에 따라 作品世界의 定式을 세운다면, 이제까지 검토되어 온 바와 같은 두 項, 즉 <어둠의 세계와 狀況認識>, <超克意志와 狀況克服의 精神>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대한 극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陸史詩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둠>과 <고뇌>와 <절망>의 세계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초극하려는 의지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고뇌와 시대의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획득한다. 이 생명의 공간은 그의 참삶의 자리가 확보되는 곳이며, 그의 소망의 세계가 확실한 믿음의 그것으로 그의 의식 속에서 의연하게 先取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時代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또한 시대의 어둠을 자신의 삶의 어둠으로 받아들이며, 절실한 체험을 투철한 現實認識 및 강인한 超克의 意志를 통해서 形象化한 陸史는 韓國現代詩에서 <詩>와 <行動>을 일체화하고, 또한 작품의 예술성과 현실·사회의를 효과적으로 수용·포괄한 稀有한 시인이기도 하다. 陸史의 정신의 강인함이 높은 예술성을 획득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절실하게 체험된 삶의 표현인 陸史의 언어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유효하며, 이와 같은 점에서도 陸史는 韓國現代詩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탁월한 시인의 한 사람이다.

